

# 경찰·소방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비교 연구

이희선

이 연구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는 침습이 1.88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각성이 1.7531, 회피가 1.7221 순으로 나타났다. PTSD 절단점인 24/25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24명(25.5%)이 PTSD 진단 집단에 속한다. 또한 14명(14.8%)이 부분 PTSD에 분류되므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36명(38.2%)이 부분 PTSD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는 침습이 1.99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각성이 1.8233, 회피가 1.7996 순으로 나타났다. PTSD 절단점인 24/25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27명(30.6%)이 PTSD 진단 집단에 속한다. 또한 18명(20.5%)이 부분 PTSD에 분류되므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45명(51.1%)이 부분 PTSD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경찰, 소방,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1. 서론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치안의 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존립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다(최응렬, 2005: 379). 경찰공무원의 이러한 업무 특성은 다양한 위협과 그로 인한 외상성 사건들에 노출되어 있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수행 하는 도중 즉, 범인을 체포 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동료의 죽음이나 자신의 신체의 손상을 경험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접하기 어려운 살인, 교통사고, 가족 간의 동반자살에 따른 번사 사건 등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생명신체를 위협당하는 상황과 과도한 업무환경에 의하여 외상성 사건에 대한 빈번한 노출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와 테러, 사고, 산업재해, 대형 교통사고 등의 인적 재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 부상자의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화재진압, 재난수습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상황 속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기도 하며, 끔찍한 장면들을 목격하기도 하고,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지기도 한다.

PTSD는 실제로 신체에 해를 입거나 위협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데 즉 타인의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신체적인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타인을 구조하지 못하고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PTSD로 발전할 수 있다.

DSM-IV에 의하면 PTSD증상은 사고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이나 악몽에 시달리는 등과 같은 외상 사건을 재경험하고 그러한 외상사건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거나 회상되는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둔감 시키고 고도의 지속서적인 각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집중력과 기억손상, 식욕상실과 무력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이옥정, 2011; 신성원, 2007). 더 나아가 외상사건을 경험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극단적인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외상사건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의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 1. 경찰과 소방 직무의 특성

#### 1) 경찰 직무의 특성

경찰 업무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며 위험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경찰이 위험의 제거를 그 주된 기능으로 함에 따라 자연히 경찰 자신도 그러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다른 직업보다 많다. 무엇보다도 경찰은 흉악범 검거, 폭력시위 진압,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교통 단속 등 생명과 산체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직무상 매일 범죄자, 주취자 등 문제가 있거나 범죄피해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을 상대하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일선 지구대의 주취자 처리는 전체 사건의 21.4%에 달하여 경찰업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경찰혁신기획단, 2010). 경찰공무원에 대한 주취자의 행태가 공권력 경시풍조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 경찰은 본연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주취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경찰 업무는 예측불가능성, 돌발성, 긴급성 등의 속성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의 비하여 직무스트레스가 현저히 높다. 사건발행시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 상황을 즉시 연결해야 하거나, 범인추격 등 긴급 상황이 상존하고 있다.

경찰 직무가 돌발적이고 긴급성을 요하다보니 정규근무시간의 강제성이 높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을 자국의 법정근로시간보다 강제로 초과하도록 제도화한 사례가 없다. 또한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한 비번자 동원시간을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은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이 400명 정도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대근무자도 적정한 근무시간과 충분한 비번시간의 보장, 야간근무의 최소화와 더불어 월 평균 8-12일 정도의 별도 휴무일을 보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다양한 교대 방법으로 인력을 운용하여 야간 근무로 인한 신체적 불균형과 악화를 최소화하고 있다.

## 2) 소방 직무의 특성

소방조직은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업무를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지만, 그 본연의 업무성격은 화재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직접 출동하여 사태를 수습하는데 있기 때문에 내근 인력보다는 현장 활동 인력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현장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인력의 업무수행 능력과 훈련체계, 건강과 근로조건 등의 인적자원 관리차원의 문제가 소방조직의 핵심 영역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재정여건과 인식부족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소방인력의 양적 부족과 열악한 근무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업무의 긴급성으로 인해 사전준비 없이, 무거운 방화복과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활동을 임해야 한다. 더구나 쾌적한 환경 조건이 아닌 열기, 연기, 유독가스, 습기 등의 장애요인이 많은 악조건 하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이처럼 소방직무는 평상의 사무환경이 아닌 극히 위험한 활동여건의 조성,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내용 상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은 직무의 특수성에 따른 많은 신체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특수성은 그들의 직업성 질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근무 중 현장활동을 수많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복잡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장비가 아무리 충실하고 안전관리가 철저해도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연소의 부산물과 화학물질에의 폭로, 심각한 열기에 노출되는 물리적 위험요소, 응급처치나 의료서비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과 같은 생물학적 위험요소 등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2. 외상사건의 개념

외상이란(trauma) 두 가지의 사전적인 의미를 가진다. 첫째 폭력 또는 공격적 행동에 의해 유발된 신체적인 상처 혹은 충격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심리적인 손상 또는 고통을 유발하는 경험을 지칭한다(Radom House Dictionary, 1995). 심리학 또는 정신과에서의 외상은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의 장애진단 준거(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이하 DSM)에는 외상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APA, 1994: 87). ① 실제적이 죽음이나 죽음의 위협이 가해진 사건, 혹은 심한 부상,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적 온존성에 대한 위협을 경험, 목격하거나, 직면한 적이 있어야 하며, ② 위의 ①을 겪은 개인의 반응은 강한 두려움, 무력감, 공포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의는 PTSD를 유발하는 외상사건의 개념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반영한다. 즉 초기 PTSD가 진단에 등장했을 때에는 첫째, 외상사건은 거의 어느 누구에게라도 상당한 스트레스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을 만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쟁, 강간, 고문, 자연재해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둘째, 본인이 직접 그 상황에 노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APA, 1980: 92). 그러나 이후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 유발사건이 아니지만, 다소 심각성이 약하더라도 반복적인 사건(예를 들면 교통사고, 폭력피해)들도 PTSD를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졌다(Breslau, 1988; Breslau, 1991). 따라서 다소 심각성이 약한 스트레스 유발사건 역시 외상사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에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기 힘든 어려운 일만 정신적인 외상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나 외근근무에서 자신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극심한 무력감을 느꼈거나 매우 심한 공포를 겪는 사건이라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목격만 했다 하더라도 외상적인 사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Carlier & Gerson(1944)에 의하면 외상사건을 직접적인 외상과 간접적인 외상으로 구분하였는데 충격, 인질사건, 폭동사건과 같은 매우 폭력적인 사건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적인 외상과 치명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확대 당한 사람을 면담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외상으로 구분하였다.

외상사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직도 주관적인 지각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단순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를 위하여 외상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도록 하겠다. 첫째, 외상은 개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던 사건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 또는 죽음의 위협을 주었던 사건이다. 둘째, 외상은 개인이 지각하기에 외상적 이어야한다. 따라서 경험한 사건이 본인이 지각하기에 충격적이고 심각했을 경우에만 외상으로 간주한다(주혜선, 2008: 8).

### 3. 외상후 스트레스의 의의

####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스트레스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사전에 의하면 스트레스(stress)라는 단어는 중세 영어인 stresse(고난,

고통)에서 파생되었다. *stresse*는 고대 프랑스어 *estresse*(줄임)에서 유래했고, 이 단어는 라틴어 *stringere*(팽팽하게 당기다, 팽팽하게 죄다)의 과거분사인 *strictus*(팽팽하다, 좁다)에서 나온 통속 라틴어 *strictia*에서 유래했다.

스트레스를 인간에게 처음 적용한 사람은 Cannon으로 그는 감정의 변화(공포, 불안 등)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생체에 변화(교감신경의 긴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다. Cannon에 의하면, 자율신경계와 감정의 관계는 싸움을 위한 교감 신경과 안정을 위한 부교감 신경이 적절히 평형을 유지할 때 신체적·심리적 항상성(homeostasis)이 유지된다고 보았다(강동목, 2005: 9).

1930년대 말에 현대 과학적 영역에서 스트레스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Hans Selye인데 그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부적인 유발자극 또는 원인을 *stressor*(스트레스 요인)라고 부르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유기체의 소모적인(wear and tear) 비특정적 반응(non-specific reaction)을 *stress*라고 하였다(Selye, 1979: 12).

Selye(1973)는 스트레스 반응은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와 같은 것에 의한 신체적 불균형 상태에 의해 초래된다고 보았으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건 모두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며 긍정적 스트레스는 *eustress*, 부정적 스트레스는 *distress*라고 명명하였다. 긍정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증진, 생산성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질병유발, 건강악화, 생산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Selye(1973)는 심리적인 사건들이 물리적 스트레스 요인과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항상 정도의 문제로서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혹은 그 강도가 높을 때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유발된 흔하고 비특정적인 신체 반응을 일반적 적응 증후군(General Adaption Syndrome: GAS)라고 불렀다. 그는 일반적 적응 증후군은 세 단계의 일련의 반응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는 경고반응기(the stage of alarm reaction)로 스트레스 요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시기이며, 1~48시간 내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체온 및 혈압 저하, 저혈당, 혈액농축 등의 신체적 반응이 주된 특징이 된다. 다음 단계는 저항기(the stage of resistance)이며, 경고반응기를 지나고도 계속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노출될 경우 이에 대한 저항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소진기(the stage of exhaustion)로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기이다.

여러 가지 유해한 자극이나 상황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유기체의 역동적인 상태로서 스트레스 개념을 정의하는 이러한 접근법 이외에 다른 한 가지 접근법은 스트레스를 변화와 적응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Holmes와 Rahe에 의해 제시된 접근법은 여러 가지 생활사건(life events)이 스트레스 상황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개인의 생활에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게 되고, 개인의 적응능력의 역가(threshold)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olmes & Rahe는 사회재적응평정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SRRS)를 개발하여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들의 척도에 힘입어 스트레스 연구의 초

점은 동물 연구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스트레스(life stress) 연구로 바뀌었다(Rlagusxor, 2005: 496-497).

##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의

직무수행 중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반응은 연속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증상의 강도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다면 적응장애, 급성스트레스장애, PTSD, 만성 스트레스 장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적응장애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일시적인 적응상의 문제 점을 야기된 경우이고 급성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사건을 겪은 후 나타나는 증상으로 PTSD와 같으나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하여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의 정신적, 신체적인 증상들을 총체적으로 말한다(Makus, *et. al.*, 2005).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는 1980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이하 PTSD)를 불안 장애의 한 범주에 속하는 정신질환의 하나로 인정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별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외상사건을 겪은 후 나타날 수 있는 일련의 특징적 증상군들의 조합을 PTSD라고 정의 했다.

PTSD의 핵심적인 특징은 ① 개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와 같은 사건에의 노출, ②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 ③ 외상과 관련된 활동과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와 정서적 마비, ④ 증가된 각성이다. DSM-IV에 기록된 PTSD의 진단 기준은 진단기준 재경험의 증상 5개, 회피마비 진단증상 7개, 과각성의 진단 증상 5개를 포함하여 17개의 증상이 기술되어 있다.

PTSD 증상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급성기로 사고 후 3-7일 이내 발생하는 현상으로 신체적인 도움이 우선되고 정신보건상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둘째는 아급성기로 사고 후 1-3개월 이내이며 피해자는 수면장애를 호소하거나 괴로운 기억을 잊어가지만 사소한 자극에도 힘들어하는 증상이 발생한다. 셋째는 만성기로 사고 후 3개월 이후이며 피해자가 초조와 불안해하며 쉽게 화를 내고 수일이 지나도 이러한 증상은 회복되지 않는다.

Alexander(2011)에 의하면 일반인구의 일생에 한번은 PTSD에 이환될 확률은 8-9% 로 추정되고 있으나 미국의 소방관의 경우 18-30%까지 보고되고 있고 Comeil(1999)에 의하면 캐나다의 소방관 17.3%, Wagner(1998)에 의하면 독일소방관 18.2%가 유병율을 보이고 있다. 참전군에 대한 PTSD도 높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Breslau에 의하면 20.9%가 PTSD 고위험군임을 알 수 있다.

Davidson(2004)에 의하면 PTSD는 예전에는 주로 전쟁에 노출된 결과 나타나는 정신질환으로 인식 되었으나 지금은 일반시민들에게도 나타나는 중요한 정신질환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품백화점 붕괴사고나 대구지하철 사고를 직접경험하거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과거의 사건이 생생하게 재현됨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을 느끼거나 비슷한 장소에 가면 현기증이나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꼼짝 못하고 슬픔에 할 말을 잃고 어떤 일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질 수 없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주민들은 폭음과 붕괴되는 집과 건물들을 보면서 극도의 공포로 인하여 현재에도 작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과민반응하며 수면장애, 분노, 참을성 부족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을 강타했던 구제역과동으로 도살을 담당하였던 농민이나 수의사들도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선행연구

##### 1)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선행연구

이옥정(2010)의 연구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외상사건의 횟수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황인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외상후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각 스트레스와 소진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으로 사회적지지, 대처방식의 조절 등과 같은 요인을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유의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미혼인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다고 하였다(황인희, 2009).

##### 2)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선행연구

이주대학교와 산학협동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실태조사(2008)가 있었고 이후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서적 탈진, 사회적지지, 업무에 미치는 연구가 있었고(최혜경, 2009), 권순찬은 소방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관련 요인을 분석한 후 PTSD 유병률을 추정하고자 연구하였는데 남자소방관의 PTSD 유병률은 13.7%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 III. 연구의 설계

#### 1. 연구의 대상

이 연구의 목적인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수준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100명과 동일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각각 100부씩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수거하였으며, 총 188개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다. 이 중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설문지는 99부, 소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지는 89부이며, 통계처리에 부적합한 설문지 6개를 제외하고 총 182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대상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알아보기 위하여 Horowitz(1977)등이 개발하고 은현정(2005)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어판 사건충격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R-K)을 사용하였다.

IES-R-K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과각성(6문항), 회피(8문항), 침습(8문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문항들은 DSM-IV에서 제시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17개 증상으로 구성된다. 경험한 외상성 사건에 대해서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증상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없다'(0)에서부터 '많이 있다'(4)까지 기입하게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하는 도중 경험한 증상에 대해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총 점수는 0점에서부터 88점의 범주에 있고 이중 24/25점이 완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구분하여 절단점이고, 17/18점이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상인을 구분하는 절단점이다(은현정 외, 2005). 이 연구에서는 25점 이상일 경우 PTSD군으로 분류하였다.

##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둘째,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조사결과의 분석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 관련 특성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경찰공무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93.6%, 여자가 6.4%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에 따라서는 20대가 19.3%, 30대가 36.1%, 40대가 32.9%, 50대 이상이 11.7%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혼이 30.9%, 기혼이 69.1%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3.5%, 전문대학 졸업이 32.9%, 대학교 졸업이 40.4%, 대학원 졸업 이상이 3.2%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96.5%, 여자가 3.5%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에 따라서는 20대가 20.5%, 30대가 39.7%, 40대가 31.8%, 50대 이상이 8.0%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혼이 22.8%, 기혼이 77.2%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8.2%, 전문대학 졸업이 34.1%, 대학교 졸업이 43.2%, 대학원 졸업 이상이 4.5%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성 별	남 자	88	93.6	85	96.5
	여 자	6	6.4	3	3.5
연 령	20 대	18	19.3	18	20.5
	30 대	34	36.1	35	39.7
	40 대	31	32.9	28	31.8
	50 대 이상	11	11.7	7	8.0
결혼여부	미 혼	29	30.9	20	22.8
	기 혼	65	69.1	68	77.2
학 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	23.5	16	18.2
	전문대학 졸업	31	32.9	30	34.1
	대학교 졸업	38	40.4	38	43.2
	대학원 졸업 이상	3	3.2	4	4.5
전 체 표 본		94	100.0	88	100.0

## 2) 조사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직무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경찰공무원의 계급에 따라서는, 순경이 22.3%, 경장이 36.1%, 경사가 30.8%, 경위가 8.5%, 경감이 2.3%으로 나

타났으며, 담당업무에 따라서는 생활안전이 52.1%, 경비가 14.9%, 수사·형사가 17.0%, 교통이 13.8%, 기타가 2.2%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1년 미만이 4.3%, 1년 이상 - 5년 미만이 19.1%, 5년 이상-10년 미만이 21.2%, 10년 이상 - 20년 미만이 36.1%, 20년 이상-30년 미만이 17.0%, 30년 이상이 2.2%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계급에 따라서는, 소방사가 22.7%, 소방교가 31.8%, 소방장이 34.1%, 소방가 10.2%, 소방경이 1.2%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업무에 따라서는 화재진압 업무가 36.3%, 구조 업무가 19.3%, 구급 업무가 31.8%, 행정 업무가 4.5%, 기타가 3.4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1년 미만이 8.2%, 1년 이상 - 5년 미만이 17.0%, 5년 이상-10년 미만이 20.4%, 10년 이상 - 20년 미만이 30.6%, 20년 이상-30년 미만이 23.8%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

구 분		경 찰 공 무 원		소 방 공 무 원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계 급	순 경 / 소방사	21	22.3	20	22.7
	경 장 / 소방교	34	36.1	28	31.8
	경 사 / 소방장	29	30.8	30	34.1
	경 위 / 소방위	8	8.5	9	10.2
	경 감 / 소방경	2	2.3	1	1.2
담당업무	생활안전 / 진압	49	52.1	32	36.3
	경 비 / 구조	14	14.9	17	19.3
	수사형사 / 구급	16	17.0	28	31.8
	교 통 / 행정	13	13.8	4	4.5
	기 타	2	2.2	3	3.4
근무기간	1년 미만	4	4.3	7	8.2
	1년 - 5년 미만	18	19.1	15	17.0
	5년 - 10년 미만	20	21.2	18	20.4
	10년 - 20년 미만	34	36.1	27	30.6
	20년 - 30년 미만	16	17.0	21	23.8
	30년 이상	2	2.2	-	
전 체 표 본		94	100.0	88	100.0

## 2.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리컬트 5점 척도, 0-4점)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외상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침습이 1.88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각성이 1.7531, 회피가 1.722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이 17.2으로 PTSD 진단 기준인 25점에 못 미치는 정상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TSD 절단점인 24/25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24명(25.5%)이 PTSD 진단 집단에 속한다. 또한 14명(14.8%)이 부분 PTSD에 분류되므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36명(38.2%)이 부분 PTSD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경찰공무원의 PTSD 선행 연구인 신성원(2007)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경찰공무원 중 38.8%가 PTSD 진단 집단에 속하였으며, 황인희(2009)의 연구에서는 12.73%가 PTSD 진단 집단에 속하였다.

<표 3> 경찰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

구 분	빈 도	평 균	표 준 편 차	분 산
과각성	94	1.7531	.62435	.359
회 피	94	1.7221	.66517	.373
침 습	94	1.8843	.68127	.401
전 체	94	1.7865	.60234	.356

## 3.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

이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리컬트 5점 척도, 0-4점)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외상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별로 살펴본 결과 침습이 1.99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각성이 1.8233, 회피가 1.799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이 18.6으로 PTSD 진단 기준인 25점에 못 미치는 정상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TSD 절단점인 24/25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27명(30.6%)이 PTSD 진단 집단에 속한다. 또한 18명(20.5%)이 부분 PTSD에 분류되므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45명(51.1%)이 부분 PTSD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소방공무원의 PTSD 선행 연구인 최혜경(2010)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소방공무원 중 48.5%가 PTSD

진단 집단에 속하였으며, 김한호(2011)의 연구에서는 39.1%가 PTSD 진단 집단에 속하였다.

〈표 4〉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

구 분	빈 도	평 균	표 준 편 차	분 산
과각성	88	1.8233	.61125	.342
회 피	88	1.7996	.68231	.366
침 습	88	1.9927	.69438	.388
전 체	88	1.8718	.60234	.341

### III. 결론

이 연구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는 침습이 1.88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각성이 1.7531, 회피가 1.7221 순으로 나타났다. PTSD 절단점인 24/25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24명(25.5%)이 PTSD 진단 집단에 속한다. 또한 14명(14.8%)이 부분 PTSD에 분류되므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36명(38.2%)이 부분 PTSD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는 침습이 1.99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각성이 1.8233, 회피가 1.7996 순으로 나타났다. PTSD 절단점인 24/25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27명(30.6%)이 PTSD 진단 집단에 속한다. 또한 18명(20.5%)이 부분 PTSD에 분류되므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45명(51.1%)이 부분 PTSD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하여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관 산하에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센터의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외상사건을 경험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이 있을 때 전반적인 치료와 계획을 담당하여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의료전문가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정신병원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조기의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PTSD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경찰청. 2011.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신성원. 2006. 경찰공무원의 일상적 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지현·박기환. 2009.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28(3): 833-852.
- 은현정·권태완·이선미·김태형·최말례·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4(3): 303-304.
- 이옥정. 2010. 경찰공무원의 외상성사건 경험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혜선. 2008. 중복된 외상 유형에 따른 PTSD 심각성, 불안, 우울 및 PTSD 위험 요인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6-327.
- 최응렬. 2005. 경찰학개론.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혜경. 2009.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증상, 정서적 탈진, 신체적 증상, 사회 및 직업기능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인희. 2009.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외상스트레스가 소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len, J. G. 2005. *Coping With Trauma: A Guide to Self-Understand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orpor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Christine, S. & Nigel L. 1998.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New Zealand Police: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Following Traumatic Stress. *Anxiety, Stress & Coping: An International Journal*. 12(3): 247-264.
- Delahanty, D. L., A. J. Raimonde, E. Spoonster, & M. Cullado. 2003. Injury Severity, Prior Trauma History, Urinary Cortisol Levels, and Acute PTSD in Motor Vehicle Accident Victim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7(2): 149-164.
- Green, B. 200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UK Police Officers. *Current Medical Research and Opinion*. 20(1): 101-105.
- Martin, M., A. Marchand, R. Boyer, & N. Martin. 2009. Predictors of the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Police Officers. *Journal of Trauma & Dissociation*. 10(4): 451-468.

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2011)” 등이 있으며, 관심 분야는 뇌물규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leehs@joongbu.ac.kr).

투 고 일: 2011년 11월 12일

수 정 일: 2011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9일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TSD of Policemen and Firefighters

Hee Sun Lee

The level of posttraumatic PTSD of policemen and firefighters who are working under risky environment, which stress economic profit and development rather than safety and protection, is incredibly high. If PTSD is managed adequately, police organization and fire protection organizations can attain their goals and even make advancements in their performances. Moreover, if the posttraumatic stress is not managed adequately, it could decrease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veing and increase the level of depression, and potentially leadeing to become a harmful impediment in the performance of their organizations. Therefore, the author studies to compare the impact-relationship mechanism among posttraumatic PTS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in the case of policemen and firefighters working in Koran police stations and fire stations.

**Key words:** police, firefighting, policemen, firefighter, PTSD